

공 통

31일(금)까지 제2전공 신청

오는 31일(금)까지 각 대학 교과에서 제 2 전공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제 7학기 재학생으로, 제 6학기까지 제 2전공 1개 영역에서 18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으로 한다.

통변역대학원 워크샵 개최

통변역대학원 오는 31일(금)과 4월 1일(토) 양일간 외국학종합연구센터에서 비제12(1821)사업 워크샵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샵은 현재까지 국제외부, 번역, 연구부 3개팀이 추진해온 사업 성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망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날 논의의 주요의제는 △3개 사업팀별 사업성과 발표 △비제12(1821)사업 장기전망 논의 △조정전망 논의에 따른 팀별 계획조정 및 후속대책 논의 △2차년도 예산편성 원칙 논의이다.

제 3기 영상물 제작반 모집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영상문화실에서 '제3기 영상물제작반'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영상문화실에서는 촬영과 기획, 편집에 대한 기본개념을 습득하고 실습하는 과정을 4월 4일부터 6월까지 매주 화, 금요일 오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1차 설명회가 오는 30일(목) 1시 30분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연구동

306호에서 열린다.
·인원: 선착순 20명
·수강료: 30만원
·접수: 외국학종합연구센터 행정실(담당자: 황선애, 0335-330-4876)
·문의: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영상문화실(0335-30-4848, 4859)
·자세한 내용은 <http://mainco.hufs.ac.kr/~vcs>에서 참조바람



“어떻게 당선된 만큼 열심히”

서울배움터 34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으로 기호 2번 후보였던 김윤환(사회·신방 4)과 권영준(동양·인도어 4)군이 각각 당선됐다. 이번 3월 재선거 역시 지난 해 부정선거와 마찬가지로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해 하루 연장선거를 진행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정효정 사진부장

용 인

분당출발 노선 신설해

지난 24일(금)부터 분당 차원에서 아침 출근시간인 8시 20분과 40분에 출발하는 경기대인고 1500번과 500-3번 버스가 신설됐다. 이 두 대의 버스는 사범단지를 각각 8시 30분과 50분경에 통과한다.

이제 출근차 주일 아침출발은 “아침 출근시간에 만차로 인한 승차거부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대인고와 협의한 끝에 증차가 됐다”며 “앞으로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협, 29일 대의원 총회 개최

6회 생협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는 29일(수) 4시에 후북관 교직원 식당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1999 회계년도 감사보고서 승인 △1999 회계년도 사업 및 결산승인보고 △1999회계년도 잉여금 및 결손금 처리 △2000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2000년 조합원일승인 △2000년 조합이사장 승인 순으로 진행된다.

사학과 춘계정기 학술답사 진행

사학과는 오는 28(수)부터 춘계정기 학술답사를 전라북도 일대에서 진행한다. 이번 답사는 마곡사지, 진흥중 고, 동학혁명 기념관, 선운사, 화양정 등 전라북도 일대 21곳의 유적 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흥수(1)군은 “처음 참여하는 학술답사인 만큼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자리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술답사는 사학과 학생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학과 학생들 위주로 참여해 타과의 학생들이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서 울

서학대회, 총기조 논의와 정세교양 진행

서양대학원 대표자 회의(서학대회)가 28일(화) 대학원 210호에서 5시30분부터 열렸다. 학생회와 단결·학신과 발전을 주제로 하는 이번 서학대회는 크게 총기조 논의와 정세교양으로 진행됐다. 집행부장 인준과 예산안 편성·심사도 함께 하는 이번 회의에서 서대 집행부의 사업계획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정세교양은 심도깊은 토론방식보다는 ‘통일 정세’, ‘교육 평형’ 등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학원자유화투쟁에서의 서양대학원의 위치에 대한 강연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이은재(이태리어

4)군은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를,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의 논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사대의 주요행사인 강박에서 편한 1학기말에 있을 일교 교양 학교, 2학기 있을 가바는 문화제와 매주 목요일 열리는 서양대학원 시네마테크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서학대회와 관련, 학생회장 4)군은 “서학대회는 서대인들이 뽑은 대표자들이 모이는 자리일 뿐 아니라, 서대인들을 위한 자리인 셈이다. 많은 대표자들이 참여해 함께하는 사대를 만들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법대 학생대표자회의 개최

지난 22일(목) 사회과학관 205호 강의실에서 법대학생대표자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학생회장 임명 △교수 임용 문제 등의 안건으로 진행됐다. 회칙 개정안 논의안건은 총칙 2조 “본회는 회원인 법과대학 학생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청년학생으로서 민족과 조국에 애국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본회의 목적은 본회의 회원인

법대생으로 자부심을,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양함에 있다”로 개정했다. 이와 관련 부학생회장 김원익(4)군은 “80년대의 진부적인 학생회의 성격과 한계가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참가자들은 작년 5월 청성원 기법연구회를 학회로 인준했으며, 학생회 집행부도 인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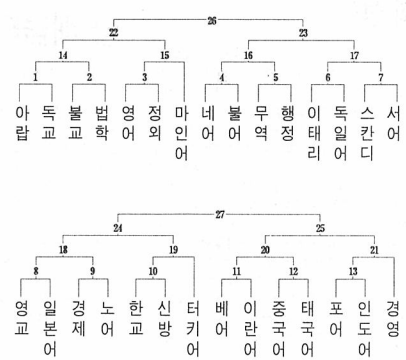
각 과 정기총회 개최

한국어교육과 정기총회가 지난 22일(수) 대학원 401호 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정기총회는 우정정학급이 성적우수자를 중심으로 지급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정정학급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또한, 예결산, 등록금 투쟁 보고와 집행부 인준도 했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김명희(3)양은 “우정 정학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아 2학기 중에 의결할 수 있도록 과학생들과 많은 얘기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외대월드컵 결전에 돌입

외대월드컵이 지난 27일(월)부터 4월 7일(금)까지 운동장에서 개최돼 2주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서울배움터 29개 모든 학과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예산전 전후반 25분, 준결승전 전후반 30분, 결승 전후반 40분으로 진행된다. 또한, 결승전이 펼쳐지는 다음달 7일(금)에는 용인배터리 축구부의 친선 경기도 열린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축구부 주장 서정호(법·법학 3)군은 “19번의 화성만큼 성대다운 멋진 경기를 보여 드리고자”고 밝혔다.

제19회 외대 월드컵 대진표



무역학과 선거, 박창섭군 당선

지난 22일(수) 열린 무역학과 선거에서 단독으로 출마한 박창섭(3)군이 재직인원 26명 중 10명 투표한 가운데 101표로 찬성해 무역학과 학생회장으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 박군은 △커리큘럼 개편 △의정안발 모임 강화 △과라 캠퍼스 설치 △스콜라메이커 개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선자 박창섭(상경·무역 3)군은 “투표율이 예상 보다 높아 학생들의 관심을 느낀 수 있겠다. 열려있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 할것다”고 밝혔다.

안주영양, 마인어과 학생회장 당선

지난 21일(화) 끝은 관공에서 마인어과 학생회장 선거가 있었다. 전체 재직인원 137명 중 102명의 투표, 102명 정원의 찬성으로 안주영(3)양이 당선됐다. 안양은 선거공약으로 과 홈페이지 활성화와 소모임 활성화, 정기적인 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통해 과 학생들과 함께 만드는 학생회를 만들어 나갔다고 전했다. 다음달 6일 정기총회로 개최할 예정인 안양은 “과학생회 출범이 많이 늦어졌다. 늦어진 만큼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과를 열심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람 “지난 4개월의 감옥생활이 힘들었다고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지난 17일(금) 출소한 99년 용인배터리 총학생회장 신동현(동유럽·헝가리어 4)군은 만나



“몇 년, 몇 십년 국가보안법에 묶여 지금도 석방되지 않은 장기수, 양심수들 생각하면 지난 4개월의 감옥생활이 힘들었다고 말하기 부끄럽다”

지난 17일(금) 집행유예로 출소한 99년 용인배터리 총학생회장 신동현(동유럽·헝가리어 4)군의 말이다. 신군은 지난 해 11월 22일 경기도교도소 안과 형사들에 의해 집요해서 7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탈퇴 거부에 따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잠복근무하던 형사들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다”며 그 날 아침을 회상하는 신군은 비합법 방법으로 잡아가는 행태에 많이 분노스러웠다고 전한다. 원래 한총련 대의원 체제의 경우인 소환장

이 먼저 대의원에게 보내지고, 그것에 불응했거나 지명수배가 떨어지는 일련의 법 절차 과정조차 생략된 것이다. 그렇게 잡혀간 10일동안 유치장과 취조실에서 수사를 받았다. “1년동안에 나의 행적에 대해 물었다. 집안에 참가 했느냐부터 등록금 투쟁시 학교 시간까지, 그 검사로 구속이 직할한지 결정한다”라며 신군은 연행됐을 당시 기억을 하나하나를 더듬으며 조금씩 회상한다. 그 후 신군은 수위구조소로 옮겨져 검찰조사를 받고, 기소를 당해 4개월 동안 독방에 있었다. “한총련을 망가뜨려 대의원에 있는 대학교의 총학생회 연방이다. 우리나라 대학교 총학생회 장들이 모여서 총학생회 활동에 대해

진국대학생들이 연대하고 또, 여러 사안들을 결정하고 함께 나아가는 한의 기구이다”고 전하는 신군은 “7년, 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라고 규정하더라도, 6,7기 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라고 언급한 사실은 없다. 그러나 공소 내용의 1/30이상이 97년 한총련 이적단체에 관한 내용이다”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과 대의원 체제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모호성과 주관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신군은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학생운동을 일궈나가는 학생들에게 국가보안법에 코에 걸린 죄라고, 그에 걸린 죄가 되는 것이다”며 한총련 탄압을 미사사건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애국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일 것 같다. 권위주의적인 내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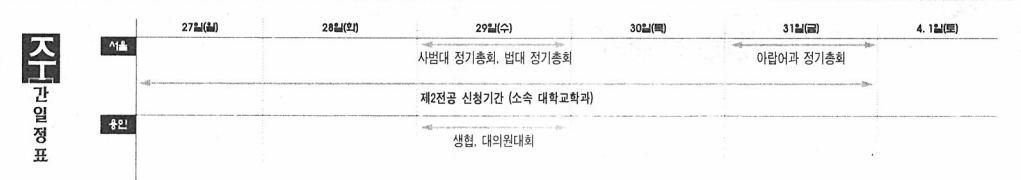
운송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서울배움터

구분	학 생		대 학 원 생	
	아침	점심A	점심B	일몰리
월 (27일)	여의도역(1,300)	산대미점(1,300)	화강점(1,300)	유계점(1,300)
화 (28일)	이화점(1,300)	북교점(1,300)	소교점(1,300)	여의도역(1,300)
수 (29일)	창조점(1,300)	점점(1,300)	오교점(1,300)	유계점(1,300)
목 (30일)	사당점(1,300)	소교점(1,300)	동교점(1,300)	간대점(1,300)
금 (31일)	두교점(1,300)	한교점(1,300)	간대점(1,300)	간대점(1,300)

용인배움터

구분	이 문 관		후 복 관	
	종식1	종식2	종식3	종식4
월 (27일)	한교점(1,300)	한교점(1,300)	한교점(1,300)	한교점(1,300)
화 (28일)	한교점(1,300)	한교점(1,300)	한교점(1,300)	한교점(1,300)
수 (29일)	한교점(1,300)	한교점(1,300)	한교점(1,300)	한교점(1,300)
목 (30일)	한교점(1,300)	한교점(1,300)	한교점(1,300)	한교점(1,300)
금 (31일)	한교점(1,300)	한교점(1,300)	한교점(1,300)	한교점(1,300)



외국인노동자의 삶



빛지고 와서 빛없는 곳으로...

가난한 삶을 벗어나고 싶어서 자메리카를 찾아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 낯선 땅에서 죽음을 당한 그들은 성전과 미천기지로 돈이 없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불법체류자 신세이기에 남몰래 애초자 가지 못하고 있다. 빛 한점 들어오지 않는 지하창고 속에서 계속해서 쌓이는 먼지 두께만큼 그들의 한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코리안 드림’의 허상

1989년 2월 산업연수생 46,547명, 미등록노동자 106,574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체류중이다. 1997년 말 IMF 이후 갑자기 밀려 닥친 경제 위기로 약 10만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떠났다. 한국경제의 불황이 알려지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의 입국이 늘고 있다. 늘어나는 외국인노동자의 수만큼 현재 그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의 아픔도 늘어나고 있다.

잔디 깎는 일을 하다 뛰는 줄에 한 쪽 눈이 심명된 외국인 노동자 E씨. 그는 심명된 눈을 고용주에게 보상받지도 못하고 그동안 일했던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주가 피해보상을 해 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 때문에 소송을 걸 돈도 가지고 있지 않아 현재 그는 자신의 돈으로 인공 눈을 한 채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이다. 회사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기술전수도 받지 못한 채 일을 시작하게 되어 국내노동자들보다 훨씬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이 일하는 곳은 대부분 5인 이하의 열세 사업장이기에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고 고용주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은 묻지 않아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사업장을 폐쇄해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태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을 보

호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노동조합결성과 같은 권리는 커녕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감자의 입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비변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와 다른 것이라면 생긴 것밖에 없는데...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사실만으로 사람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보편적 권리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삶이 너무 안타깝네요"라고 말하는 우리하고 이유진(서양·스칸디나비아·어·휴학)군. 그는 현재 상남에 위치한 외국인노동자의 집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주중에는 피해 노동자들과 상담을 하고 그들을 위한 법적 대응을 함께 하며 주말에는 그들을 위한 무료진료, 한국어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국가에서는 한돈도 도와주지 않아 피해노동자들을 위한 고소장 청구, 노동사무소나 법원에 쓰이는 비용도 만만치 않자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라고 의료지원팀장인 양명환(34)씨는 자원봉사활동의 어려운 점을 얘기했다. "러시아어, 아랍어, 인도어, 베트남어, 불어 등 세계 각국의 언어를 배우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들은 타향에서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라며 우리하고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요청했다.

하루종일 같은 일을 반복하느라 생긴 어깨근육통을 무료봉사 진료원에게 얘기하는 E씨. "지친 몸이지만 이곳(상남 외국인 집)에 와서 진료도 받고 한국말을 배우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고 즐거워요"라며 웃는 E씨에서 가진 것 없지만 소박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노동자를 볼 수 있었다. 불법 체류자 처벌해줄 시험 만료를 앞두고 대부분 한국, 중국 등에서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이 속속 자수하고 있다고 일본당국이 지난 2월 10일 밝혔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 곳곳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외국인노동자로 일하며 인권탄압을 받고 있다.

지난 97년도에 국회에 양명환 원외국인노동자보호법'이 지금에 제정되어 내·외국인이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현한 사회, 과연 누구의 몫인가?

정효정 기자 hyodeng@hammail.net



저는 평생 무얼 하며 살아야 하나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기술전수도 받지 못한 채 일을 시작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항상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열세 사업장에 종사해 산재보상보험을 받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고용주에게 심한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



▶ 같은 곳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휴고 있는 숙소 정리되지 않은 그들의 침실이 떠돌이의 삶을 잘 나타내 준다.



▶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인해 몸이 아파도 병원도 갈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은 작은 병원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않아 큰 병이 돼버려 더 큰 육체적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 상남 외국인 노동자 집에서 일요일마다 진행되는 무료진료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 지난 26일(일) 방글라데시 독립기념일 이어서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타국에서라도 고국사람들끼리 음식을 준비하고 독립기념행사를 진행하며 육체의 고통과 외로움, 고국을 향한 그리움을 달랬다.

제작

정효정

사진부 기자



서울배움터 신방과 학생회장 밀착취재

나의 과 운영 철학은 바로 '사람 중심'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신방과 학생회장 이보형(4)군은 28일에 있을 정기총회 포스터를 만들고 있었다. 집행부원들과의 아침 조례를 마치고, 이듬해 학생회를 준비하는 동안 과방에서는 알림부(홍보부) 학생들이 정기총회와 홍보포스터를 일리는 대자보 작업을 하고 있었다.

과방에 걸려있는 집행부원들의 출석부에는 출근시간이 빠곡히 적혀있다. "일주일에 세 번 월·수·금요일에는 집행부원들과 조례와 종례를 합니다" 이군은 학회모임이 있는 화·목요일을 제외한 날에는 조·종례를 통해 집행부들과 함께 과운영 회의를 한다.

조례는 그날 하루 있을 행사와 일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종례를 통해서 집행부원들의 평가를 듣는다. "아침에 일찍 학교에 나오는 것은 힘겨울 겁니다. 하지만,

과 운영을 위해 집행부원들과 함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각을 많이 한 집행부원은 반을 뛰어넘으며 출근시간을 지키는 과 학생회장의 하루는 조례를 통한 과 행사고민과 종례를 통한 평가로 끝나고 있었다.

신방과는 학회와 소모임들이 굉장히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과 학생들이 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있는 것도 학회와 소모임을 통한 소식 전달이 빠르고, 학회와 소모임을 통한 친목도모가 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중심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학회가 하향 평준화가 되어가고 있어서 고민이다."

신방과는 광고학회, 보도사진 학회들의 6개의 학회와 노래패 새날과 신방과 특기반들의 4가지 소모임들 많은 모임들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매주 화·목요일에는 각 학회별 세미나를 통해 특색있는 학회운영을 하고 있었다.

"수업은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과 학생회장은 수업도 잘 안 들어가고, 성적도 안 좋다는 선입관을 깨기 위해 신방과 학생회 일꾼들은 교내교외 출석한다. 대자보 작업하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 일꾼들이 학생들과 괴리되는 것의 시작이 바로 수업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는 이군의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다.

자도 있다.

"20화점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수업을 모두 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라 조별 과제는 산배 남들이 많이 도와 주시고 있습니다."라며 산배들의 도움이 수업을 꾸준히 들을 수 있게 해주며 그 속에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

"새내기들에게 미안했다. 투표율이 80%는 넘을거라고 생각하는 새내기들을 보면서 산배들의 무관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쓰럽다" 과 학생회장의 발언을 위해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여했다. 자발적인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볼 때 가슴이 아왔고 그 모습을 새내기에게 보여줄때는 너무 부끄러웠다고 한다. 선거가 투쟁본부와 단체들의 양 구도로 나갔.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것도 아깝다고 전한다.

정계교수 복귀 지지의 위해 투쟁을 전개해 왔던 신방과는 결국 김진경 교수의 수업을 모두 거부했다.

"96년도에 학생·교수·직원의 힘으로 내몰았던 교수 학생들과의 합의 없이 슬그머니 학교로 다시 들어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정계교수 복귀 이후에 신방과를 위시한 사회과학대는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신방과가 논의 가시립니다"라며 정계교수 복귀 투쟁을 전개해온 소감을 말했다.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미명정

협정에 관한 책을 보면 이군이 많았다. 정기총회 때 주한미군에 관한 정책강연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이군은 그 동안 학내사안에 치중해 학외사안을 신경쓰지 못했다고 한다. 3월 사안이 마무리 되는 대로 집행부원들과 함께 할 국가보안법과 통일, 청년실업에 대한 교양을 준비하고 있다. 또, 과방토론회를 통해 과 학생들의 정책 토론도 함께 할 예정이다.

"역시 결론은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이 과 학생회의 중심이 아닐까요." 새내기들 한명,한명 만나기면서 새내기들과 친해지고, PCS문자 메시지로 과 학우들에게 과 행사를 알리고, E-mail을 통해 과일을 알리는 신방과회장 이보형군은 과 운영 철학은 바로 '사람'이다. 산배들의 모방이 지금의 자신을 있게한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말하는 이군은 "각인의 발전, 그리고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한 학회의 발전이 과 회장을 하는 원동력입니다"라며 대학생활에 살기 위해서 과 집행부원을 한 번쯤 해보고자 권한다.

학생들과 일대일로 만나니 좋긴 하지만, 작은 부분부터 학우들과 함께 하길 원하는 이군은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학생들과 함께하는 학생회를 만들어가겠다"라며 학생중심의 학생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박준표 기자
marquess@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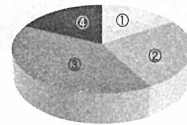
과 학생회장 설문조사

학생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기본 골간단위는 바로 '과학생회'이다. 최근 이러한 과 학생회가 '예전같지 않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양배울터 각 과 학생회장들로부터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시: 2000년 3월 25일(토)~27일(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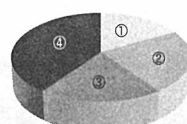
조사대상: 양 배움터 과 학생회장 50명 중 30명(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과는 제외)

1. 현재 과 학생회 일꾼이 몇명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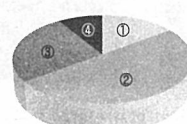
- ① 1~2명 (16%)
- ② 3~6명 (26%)
- ③ 7~9명 (40%)
- ④ 10명 이상 (18%)

2. 학생들이 과 활동을 잘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치적 성향 (17%)
- ② 학회·소모임이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서 (23%)
- ③ 학생들의 변화 (20%)
- ④ 과 일꾼의 노력 부족 (40%)

3. 과 학생회 활동 중 학생들의 참여가 가장 많은 것은?



- ① 정기총회 (15%)
- ② 모교지 (50%)
- ③ 학회 (26%)
- ④ 기타 (9%)

우리학교의 과 일꾼은 한 과당 6~9명 사이가 가장 많고(40%) 대부분의 학생회장들은 학생회 학생회 활동에서 떨어져 있고 있지 않다(60%)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5일과 27일 양일간 각 과 학생회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 일꾼의 숫자는 7~9명(40%), 3~6명(26%), 10명 이상(2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50 이상인 과도 4개과(14%)나 있으며 이 중 서울배움터 영어학부는 2명으로 최고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과 정원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기는 하나 대부분의 과가 학기초이기 때문에 과일꾼은 그리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과일꾼의 숫자가 학생회 운영에 부족해나가는 다음질문은 70%학생회장들이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과 학생들을 묶어주는 학회, 소모임은 3개에서 10개까지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가장 핵심사안인 '과학생들이 학생회 활동을 멀리하니까'라는 질문에는 60%의 과학생회장들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예'라고 대답한 학생들은 그 원인으로 '과학생회 일꾼들의 노력부족(40%)'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해서(23%) 등을 꼽았다.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니라 일꾼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과 학생들이 가장 참여율이 높은 행사는 모교지(50%) 과외회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로는 학회, 소모임 활동(52%)을 꼽았다. 또한 대부분의 과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만나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학생회가 되자'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부 oedapress@hanmail.net



아무리 크게 외쳐봐도

외대학보

출산의 소리만큼 클까요?

외대학보 4면 여론면에 실을 글을 받습니다.

대상은 학원 3주제인 학생, 교수, 직원입니다.

투고방법은 매주 금요일 늦은 8시까지 학생기자실(학생회관 2층)방문 또는 컴퓨터 통신(하이텔, 나우누리-OEDAE, Email-oedapress@hanmail.net)으로 보내주세요.

소정의 원고료도 드립니다.

난, 이런 학생회가 좋다



▶ "과화회를 살리려면 가장 기본 단위인 소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많이 개인주의화 되었다고들 하는데 그럴수록 학생들을 잘 묶어줄 수 있는 소모임이 다양하게 꾸려지는 것이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소모임 활성화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이경석(동양·마인어 1)

◀ "지회와 소모임의 경우 연습하면 하려해도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다 해도, 정원이 191명인데 과방이 이렇게 좁으니 학생들이 잘 오질 않죠. 학생회 활동을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제반시설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서 맘놓고 수다떨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일차적인 거죠." (영어학부 1)



◀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한 학생회'를 만드는 일 같습니다. 선거때만 되면 땀만 뻘뻘 공약들이 나오지만 나중에 유야무야 되고 마는 경우가 많잖아요. 학생회비 집행 같은 부분도 그래요. 어느 곳에 얼마를 쓰여졌는지 학생들에게 정확히 보고하고 공유하는 지리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선거는 학생들이 무관심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바로 학생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인식하고 있지 못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이승현(법·법학 2)

▶ "올바른 대표로서 인정받는 편이 약한 것 같아요. 조그만 복지사업부터 등록금 투쟁 등 급진한 사업까지 함께 이끌어 갈 수 있는 학생회를 원합니다. 강의실에서 복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학생회 일꾼들이 되었으면 하구요. 바른 방향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호준(동양·아랍어 1)



◀ 내가 바라는 학생회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대중적인 학생회이다. 얼마전 88%의 등록금이 올랐다. 학교측이나 교육부를 상대로 한 등록금 투쟁을 이겨본 학생회를 입학한 이후로 본 적이 없다. 이는 학생회의 투쟁이 대중적이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또한 학교측과 협상할 때 큰집인 학생회를 바란다.
김복성(동유럽학·체코어 2)

학생회 강화를 위한 제언

모두의 각인과 실천이 필요한 때

불만이 화산한 교장에는 대학생활을 막 시작한 새내기들의 이치는 수줍은 웃음과 개성으로 분주한 학우들의 발걸음이 활발하다. 꽃병추위의 발발함을 물리치고 햇빛 잘 드는 양지쪽에 서 풍기풍기 둘러앉아 마시는 소주 한잔, 새내기 환영회며 개강준비를 알리는 대자보들, 벌려진 주머니로 물리키려는 구호와 1차 민중대회를 알리는 포스터도 교정의 한 편을 차지하고 있다. 열정 보기에 10년 전과 크게 달린 것 없는 활발한 교정의 모습인데 학생회의 위기관리 말이 왜 회자되고 있는 것일까?

87년 6월 학생회를 꾸리면서 현재 아홉구나 다름없었던 학도호국단이 학생회로 일체화 전환한 이래 90년대에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며 승승장구하던 학생회. 한 파에서 한 마을을 맡아 농활을 다녀갔다가나, 과 총회를 통해 방북 자주교류가 추진되었다거나, 9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뭉쳐 자주교류반 반대 투쟁이 벌어졌다가나, 전원이 참석하는 과 모임을 갖기도 하거나, 학원자주화를 요구하는 수업거부파 학생총회를 통해 성사되었다거나 하는 90년대 초 중반의 역사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학우대중의 참여나 지지가 있어 고집을 면치 못하고 있는 오늘날 학생회의 모습을 평가하는 말인 듯 하다. 원론적으로 보자면 학생회는 '학우대중의 사회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자주적 대중조직'이다. 개개인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한국사회에서 학생회로 살아야 할 것 되는 공통적인 사회적 요구를 집단의 힘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회가 건설되었다. 농민에게 농민회와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있는 것처럼.

학생회는 대학인 공동의 사회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혜자 부담의 논리를 반대하여 국가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하며 싸웠고, 빈민권 진리의 실현을 바로 세우고 외국민 시민교육의 내용을 비로잡기 위해 싸웠고, 보다 근본적으로 모든 사회 운동을 만들어 내고 있는 분단과 독재, 외세의 간섭을 극복하기 위해 싸웠다. 그런데 요즘은 공동의 가치로 우선시되었던 대의에 앞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구를 보강한 것은 하물야 '난'만 나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는 사고방식과 '아름다운 개인주의'라는 성찰한 광고문구가 우리를 대학

인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그 속에서 학생회는 정제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 실현하는 정으로 인식되기 보다 학생회에 열심인 몇몇 친구들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장으로까지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것이 '학생회 활동에 학생들의 참여저조'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분명 논쟁거리가 많았지만 학생회 활동을 억누르려는 권력의 가혹한 탄압과 거대한 이해관계가 공짜에 있었지만 정권의 탄압으로만 끝까지가에는 우리를 스스로가 무안하다. 90년대 초 학생회 일꾼들 사이에서 전통적인 인가를 끌었던 '비보파'라는 시가 있다. 정치적 요구를 크게 앞세우지 않고도 언제나 학우대중 속에서 웃고 울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었던 비보 파대표. 정의로써 청년의 모습을 많이 아닌 몸으로 보여주어 잔잔히 감동을 주었던 비보 파대표는 당시 학생회 일꾼들에게 하나의 귀감이었다. 학생들 속을 밟아 볼이 나게 뛰어나며 의견을 모아내고, 모인 의견 학생들과 함께 실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던 일꾼들이 있었기에 학생회가 학생들의 사랑을 받으며 빛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이 학생회 일꾼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주위에는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정권의 학생회 해방파리 탄압에도 불구하고 구속과 수배를 감수하며 여전히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회 일꾼들이 있다. 오히려 우리들은 학생회에 대한 평가에 앞서 개인 의 무한 경쟁이라는 정권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순응하며 내 주위,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둘러보지 못하고 개인화·편파화 되어 가는 일상에 아무런 가책 없이 도사관으로 학원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스스로 사회의 주인으로 서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것인가. 대학생 한사람 한사람이 작은 무리가 되어 학생회 활동을 벌여왔고 학생회가 큰 줄기로 부지런히 양분을 모아내어 사회적 이해와 요구의 실현이라는 진리의 태양을 향해 끊임없이 활동하지 않는 한 학생회라는 커다란 나무의 푸른 생명력도, 자주적인 삶이라는 달콤한 열매도 존재할 수 없다.

사학부



탐방 - 전남대 인문대 학생회

"요즘, 썰렁해요. 정도 두 세했고 새내기도 안 들어오는 걸요. 2학년 두 놈이 버티다가 지금은 아예 문 닫았어요. 애들은 그런 소모임이 있다는 것도 모를걸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열악한데요. 집단적인 속에서 묶어주고 하지도 않고요. 취업이나 자기 공부에 도들이 되지 않는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결에서 보기가 안타까워서 내가 뭐 도들이 될 수 있을 까도 생각했지만 이 나이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 우리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며 잠 못 이루었던 날들을 지금 학우들은 술자리에 안주거라라도 삼을 수 있을까요?"

한때 잡나기던 소모임의 선배에게 현역후배가 하는 말이다.

지금 이러한 호소의 목소리는 어디서든 쉽게 들을 수 있다. 과 학생회의 기반이 되는 소모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학자지향한 과방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노랫소리과 일들을 하는 학생들, 전남대학교 인문대는 8대에 53개의 소모임이 있을 정도로 과 학생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오는 4월 4일(화) 진행될 단과대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원철(철학 95)군은 인문대에 대해 "우리 인문대는 모든 문제의 답을 학생들에게 찾고 있어. 토론 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앞으로는 친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곳이지"라며 자랑한다.

학생회의 중심은 학생들이다. 그러나 학생들을 한 테두리로 아우를 수 있는 소모임의 부족으로 많은 학생들이 과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선배들은 "공동체 의식이 없다"며 나무라고 또 후배들은 '비정신적이다', "어떠한 활동을 하는 지 모르겠다"며 나름대로의 입장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조군은 "일꾼들의 고민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그 이유를 찾는다. 과 집행부나 단과 집행부들의 고민이 적어 학생들이 과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행사를 일꾼들 중심으로 생각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러나 전남대 인문대는 많은 학생들이 행사의 기획을 하고 준비한다. 자원봉사단, 문예단, 심한단 등 많은 학생들이 심적조정으로 참가하

고 있다고 한다.

"학생회에서 중시되는 것은 민중성과 공개성 그리고 대중성입니다"라며 학생들의 목소리로 채우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어떠한 행사도 학생들의 의견을 통해 이루어지고 기획하고 집행하죠"라고 강조한다.

"학생들에게 소속감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만 학생들이 과나 단과로 묶일 수 있으니까요"라고 말한 조군은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과에 대한 소속감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전남대 인문대는 과마다 부서체제를 운영해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과 부서에 소속되어있다고 한다.

또한 새내기 맞이 행사도 소모임의 공청회나 공개 학습 등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새내기들의 소모임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새내기들의 반응도 좋다고 한다.

조군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소모임과 과 학생회 위기에 대해 90년 이후 학생운동의 탄압으로 학생들이 과에서 멀어지자 일꾼들이 좌절하고 그에 따라 고민이 적어졌다고 말한다. "예전의 학생들과 지금의 학생들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들이 얼마나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문제점을 고민하고 토론의 부재에서 찾는 것이다.

"토론과 고민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조군은 말한다.

또한 학생회의 위기에 대해 조군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무작정 다른 학교의 사례를 따라하기 보다는 각 대학이나 단과대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이고 과학적인 발란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한다.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는 소모임의 비활성화와 과 학생회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일꾼들의 많은 고민과 토론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또 학생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소모임과 과 학생들이 대안 이야기와 외대에서도 울려 퍼지길 기대한다.

최호남 기자 hobbang1083@hanmail.net



6기 전대협 총회



7기 한총련 대회



4기 한총련 대회



5기 한총련 대회



5기 전대협 총회



4기 전대협 총회

청년 학생의 자주적 대중조직 한/총련

8기 대의원대회

정권의 탄압으로 무너질 조직이지만 세우지도 않았습나다

비록 2년동안 제대로 치뤄내지는 못했지만

올해는 반드시 성사할 것입니다.

활발한 토론의 장, 힘찬 결의의 장을 만들어 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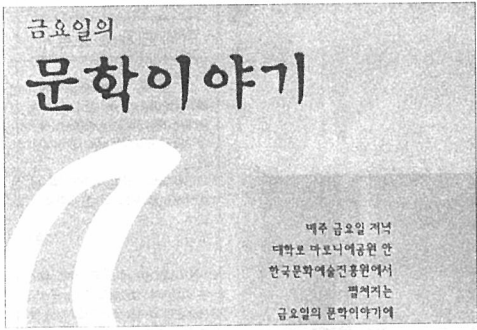
● 일 시 : 4월 7일~9일

● 장 소 : 전남대학교

● 행 사 : 의장선출/전야제/본회의

새내기한마당/과 전진대회 등

세날을 여는 민족자주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무료 문화 강좌소개 - '금요일의 문학이야기'

금요일의 특별한 이야기 마당

은 독자와 자신의 경험에 글을 쓰는 가장 좋은 스승이라며 책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김원일씨는 20대에 읽은 책들과 유년시절의 경험이 자기에게 큰 영향을 줬다고 말하며, 짧은 시절의 기억과 경험은 오랫동안 작품세계에 영향을 주는 만큼 많이 읽고, 일상에서 겪는 일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원일씨는 "문학도의 길을 걸으면서 영어 내가 잘못 걸었는데 이젠 고민 해왔는데 작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독자들의 따뜻한 호응을 보면서 새로운 인식과 용기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독자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길 바란다"며 행사의 소감을 전했다.

"금요일의 문학 이야기"는 3월 황지우씨의 '시인과 시인의 마음', 4월 7일 고은씨의 '시와 함께 가는 길' 등 총 40회의 문학강좌가 12월 29일까지 이어진다. 또, 문예진흥원은 홈페이지(<http://www.kca.or.kr>)를 통해 강연에 참여한 소감과 독후감을 공모해 기념품을 증정한다고

한다.

한편, 강의실에 좌석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서 강의를 들어, 주최측의 배심원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답조 저녁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강의 이후의 질문시간을 줄여 8시30분경에 행사를 끝마쳤다. 작가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독자와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면 참여자와 강사들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향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박준표 기자 marquess@hanmail.net

일 사 2000년 3월 24일 - 12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장 소 대학로 문예진흥원 강당
강연료 무료
주 최 한국문화예술진흥원(www.kca.or.kr)

외대화보

문 화 단 신

윤인 한시울, 신임생형 연주희

클래식 기타리스트 한시울이 28일(수) 늦은 6시 후배관소극장에서 열아홉번째 '신임생형연주회'를 연다. 정동 클래식빌딩으로 한 이번 연주회는 클래식 중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을 만한 곡들을 주로 선정했다고 한다. 스페인 민중음악 '플리멘토', 보케리니의 '비뉴에트', 바하의 '예수 우리의 기쁨과 소망' 등 모두 14곡을 솔로, 트리오 듀엣 등 다양한 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영화 '여인의 향기' 주제가 'por uaa cabaza'를 연주하는 것으로 클래식 기타로 들어보는 색다른 음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에 김중현(지대·화과 2)군은 "클래식기타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클래식 기타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오케스트라의 세계를 맛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다"고 전했다.

서대, 시내마테크 '비틀즈' 상영예정

오는 30일(목) 대학원 31호에서 서대내에서 주최하는 시내마테크 3번째 상영회를 개최한다. '화성성곡'의 감독 팀버튼의 비틀즈 주스가 상영된다. 클래식하지만 유쾌한 비틀즈를 연기한 마이를 키톤의 연기가 빛나고, 이제는 플스터의 대명에 키톤노 라이더의 옛날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문의) 서대 461-9065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금요일의 문학 이야기'라는 이름의 무료 문화 강좌를 실시한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동안 문예진흥원 강당에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들과 독자들의 만남을 통해 작가들의 문학세계를 독자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24일(금) 열린 첫 번째 이야기 마당은 '노랑', '도요새에 관한 명상', '별명을 찾아서' 등으로 친숙한 소설가 김원일씨의 '어린 사람들'이 문화를 하는'이라는 주제로 약 130여명의 일반인들이 참여했다. 김원일씨는 강의에서 유

소설가 김원일씨 인터뷰

문학, 폭넓은 경험과 깊은 사색을 향한 걸음

문학이야기 첫 번째 행사를 마친 소감은 진지하게 강의를 들어주시고 고맙다. 사람들이 이 서서 강의를 들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젊은이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대 대학원들에게 있어서 문학이란 충추고 노래하는 상업문화가 대학원들에게 많이 퍼져 있다. 세상이 돌아가는 추세이기에 의면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실연에 담렸을 때나 좌절했을 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축적되어 있는 상업적인 쾌락이 아니라 문학을 통한 경험 일 것이다. 한달의 2-3일 정도의 심의 여행을 통해 자신의 정신적 자양분을 키우는데 필요하다.

문학체험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앞으로는 한 가지 분야에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를 폭넓게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생략해 볼 때 문학을 어떠한 여행보다도 많은 경험을 준다.

문학을 통해 폭넓은 경험과 깊은 생각에 가장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이 일시 문재로 출제되고 어문시험 다양한 사색보다는 한가지 답을 강요하는 한 교육제도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청소년기의 경험과 사유는 그 사람이 문학을 창조하는데 있어서 바탕이 된다.

문학을 한가지 답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 그



사람의 경험과 사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경험과 사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자기의 독표정점을 뚜렷히 했으면 좋겠다. 그 독표정점을 하는데 있어서 문학은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좌절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독표를 함께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박준표 기자 marquess@hanmail.net

본보 9면 '외대인' 박재현에게 받은 학회 활성화를 위한 학회 소개문입니다. 학회 활동의 특징을 적어 읽고 지 5대 항목으로 정리하여 보내 주십시오.
전화: 서울) 02-361-4182
영인) 0335-330-4129
@영인: 나우누리 ID: OEDAE
E-mail: oedae@hanmail.net

외대화보

대외외대인에게

너나 들이 학회소개

지난 1992년에 조직되어 첫 수로 4년째를 맞고 있는 너나 들이는 '너'와 '나' 그리고 '우리'들이라는 뜻의 줄임말로 주 활동이 독서 토론인 독서 토론 학회이다. 무역학과의 대표적 학회이자 경성대학교 새내기들이 주축이 된 너나 들이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자면 학회원들이 매주 한권의 책을 읽고 그 책에 관한 주제를 정해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별히 어려운 책들이 아닌 모두가 한 번쯤은 읽어 보았을 만한 도서를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보는, 책을 읽고 나서는 단순한 감상이 아닌 자신의 특성, 저술할 당시의 사회적 상황들의 여러 요소들까지 고려하여 다각도에서 책을 분석한다. 때로는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학회원들끼리 서로 분석해 나가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과 결론이 도출될 수 있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식과는 또 다른 사실들을 발견해낼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독서 토론 활동 외에도 학회의 기능을 지식의 단순한 교환의 공간이 아닌 구성원들끼리 함께 하는 공간으로 서로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여러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지난 학기 활동을 보면 자사 사를 한권씩 적어와 서로 감상할 하며 토론을 하기도 하였고, 학회에서 공연하는 연극을 같이 관람하며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여름에 MT를 통해 학회원들의 유대감을 더욱 깊이 다질 수도 있었다. 독서 학회로서의 이미지가 자칫 지루하다고 인식되기 쉽기 때문에 단순한 토론에 그치지 않고 다른 활동들과

함께 하여 학회원들의 활발한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학기부터 인터넷에 '사이버 무역과 법'이라는 채널을 통해 '너나들'을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매주 '너나들'의 활동에 대해 열람할 수도 있고 장거적으로(월요일) 갖는 학회모임이 끝나면 그날의 활동을 올려놓을 예정으로 꼭 학회원이 아니더라도 의견교환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학회원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수렴하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학회지도 발간할 예정이다.

학회로서 좀더 넓고 깊어질 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서 학회 '너나들'은 더욱 발전하고 인정받는 학회로 나아가기 위해 힘쓸 것이다.



김재현

(경상·무역 2)



공공

한국 음악가 시리즈 I 양성식의 "차이코프스키를 위한 밤"

역량있는 기성 연주자와 서울시 교향악단의 협연을 통해 수준 높은 클래식 무대를 제공할 기획공연 '한국 음악가 시리즈 I'의 첫번째 주자로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의 무대, 파카니 나. 롱-토보 캄 플레쉬 등 세계의 유명 콩쿨에서 만점을 받은 양성식은 훌륭한 테크닉과 개성적이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음악이 자랑이다. 이번 연주회는 양성식의 열렬한 바이올린 선율을 통해 러시아의 대표 작곡가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세계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매: 3월 31일(금) 오후 7시30분
곳: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및 문의: (재)세종문화회관
399-1700
입장료: 1만, 2만, 3만원

유통처는 학원로 기동건물 나리건장

동아오즈카

“선배님, 데자와 드세요”

TEJAVA ROYAL MILK TEA

00학번 새내기여러분!

아직도 인사하기가 서먹서먹한 선배님이 많으시죠?

그럼 이제부터는 반갑게 먼저 인사하시고
반갑게 사달라고 하세요!

먼저 인사하는 후배가 얼마나 예뻐 보이는데요.
식사 후에는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마시구요,
디저트로 음료수 하나 건네는 것은 어떨까요?

부드러운 영국풍 밀크티 '데자와' 정도라면
이미지메이킹도 확실하겠죠?

사랑하는 선. 후배 사이 데자와로 시작하세요.

데자와
로.알.밀.크.티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의 본질

당연한 권리 넘어 민족경제 지키는 길

철도노조 전면적 직선제 정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민주노조를 지향하며 철도노조 사무실을 정기하여 4월말(28일) 철야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현 노조집행부와 철도청, 경찰 및 정부는 "건설노조로 불리고 있는 철도노조는 철도운행의 주요"라는 대립적인 관점을 무시한 채 불법산가, 대의단체, 농성장 폭력 등 노골적으로 공투본을 탄압하고 있다. 노조집행부 정취를 위한 노동자간의 싸움으로 호도되고 있는 이 투쟁의 본질을 현재청과 철도노조의 역사에서 고찰해본다.

전필자

현재 나라의 외환보유고는 8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외환외가 당시 2천 5백억 달러에 이르렀던 외채 규모도 130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공기업, 개발은행 기업들이 조국적 자본에 계속 판관나고 있다. 또한, 투자회사, 연가금,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외국인 소유 자본들은 IMF 이전 산정주식의 11%~14% 내에서 90년 10월 28일 현재 20.8%에 이르고 있는데 액수로도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의하면 약 58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조국적 자본의 식민지배는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미·한일 무이자협 추진이 체결되고 WTO 나라준수로 본격화되며 결정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WTO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자유화, 개방화가 촉진되면서 농업, 서비스, 첨단 분야에서의 조국경제의 추축은 더욱 심화되어 갈 것이 확실하다. 즉, 이 땅은 조국적 자본의 본격적인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국적 자본의 식민지배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지난 해 12월 결산 결과에 따르면 48개 상장사는 당기 순이익이 사상 최대인 14조원에 이르렀다. 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1996년 64.2%에서 58.8%로 하락했다. 이러한 가운데 월 소득 23만 5천원 이하의 절대 빈곤층이 1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소득 격차는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다.

한해 8.6%에 이르른 실업률이 명목상으로 10월 들어 4.6%로 하락하였고 실업자 수도 약 102만 정도로 줄어들었다 한다. 그러나 이 실업률은 주 18시간 미만 불안정 취업노동자와 약 30만에 이르는 인턴사원, 공공근로 노동자, 실업실업자를 취업자로 분류하여 계산한 것으로 이들을 포함하면 간단하게 실업률은 9%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뿐 아니라 비정규직은 8월 현재 53.1%로 계속 높아지고 있고, 올해 신규 취업자 중 92% 이상이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구조는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민족경제를 파괴하고 구조조정과 대량감원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압박하는 신자유주의의 바탕은 철도 노동자들에게도 불어오고 있다.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철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반 민영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런데 현 철도노조 집행부들은 철도청과 인연감속에 합의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에만 치중하고 있다.

하기에,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직선제 정취를 통한 민주노조 건설"은 시급하고 막중한 임무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철도노조 건설은 53년의 철도노조 역사에서, 한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철도노동자들의 희망이자, 숙원의 과제였다. 철

도노동자들은 1948년 전국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분쇄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동맹 산하 운수부 연맹으로 발족하였다. 대한독립촉성노동총동맹은 현청의 노동자들이 아닌 서북청년단 등 우익 청년단체의 건부들이 하향식으로 조직되었으며 철도 노동조합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직되었다. 이러한 설립배경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철도노조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지 않는 노조, 사용자와 공권력에 종속한 노조'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철도노조는 정권의 시녀가 되어 노조 건부의 연달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거나 사용자인 정부와 철도청의 노무관리 기구로 전락하는 역사를 이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2년 유신헌법 개정이나 1987년 전두환 정권의 4.13 호헌조치에 한국노동총과 함께 거점을 계속 이어왔었다. 1986년의 기관사 중심의 파업이 있었으며, 1994년에는 전국기관차협회의라든 단체를 구성하여 노동조합이었던 해아를 근무조건 개선과 변형 근로제 철폐 등을 위해 파업까지 이어갔다.

이러한 투쟁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조항의 위헌 정도 직선으로 뚫지 못하고 최소한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철도 노동자들이 민영화와 맞서는 상황에서 민주노조



철도노조의 이름의 역사에 맞서 공투본은 41일째 철야농성 중이다

를 세우기 위해 들고있던 것이다. 이렇듯 철도 노동자들의 "전면적 직선제 정취와 민주노조 건설"은 정부의 민영화 정책과 대립 반대의 53년의 숙원의 과제인 민주노조 건설이 그 본질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공권력, 철도청, 여운노조 집행부의 합작에 의한 무차별 폭력과 부정에 맞서 생존과 정의와 양상으로 단결하여 싸우는 "철도노조 전면적 직선제 정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투쟁은 "우리의 위원장을 우리의 손으로"라는 자국의 당연한 권리를 찾는 것임과 동시에 파탄으로 가는 민족경제를 지켜내는 애국적 투쟁이라 할 수 있다. 하기에 철도 노동

자들의 투쟁은 철도 노동자본의 문제는 아니다. 정 민주노조 운동의 문제이고 전 국민적인 문제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 땅의 전 노동자들은, 이 땅의 전 국민들은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다. 철도 노동자들의 전면적 직선제 정취를 위한 투쟁,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투쟁, 민영화 반대 투쟁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강현구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대 부대변인)

취도 새도 모르게

O... 얼마전 송승헌 용인배우려 99년 총학생회장으로 임기가 끝나가는 무렵 집 앞에서 취도새도 모르게 잡혀있다. 서울 대 학생도 졸업식장에서 연행됐다는 데...

이해 우리 크로나를 "국가보안법, 그러다나 내가 취도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어..."

(홍)

O... MBC 드라마 '허준'과 '나쁜 친구'들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지금도 의학과들이 풀리지 않는 거대한, 본 로나를 TV로 보여 생각하길 '이이' 형의 원, '나쁜 친구' 같은 우리나와 의사들에게 짐 안 대 놓아주게

(박)

O... 전국대학교 학생처에서 작년 선거에 나온 학생과 그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신상명세서와 성격이 명시되어있는 지료가 발견되었다는데...

이해 우리 크로나를 "학생처가 아니라 홍신사 야부 후시 화장실엔 물레 카메라를 설치하지도..."

(남)



O... 각종 알간지마다 경합지역을 발표하는 등 선거권 분리가 가열되는 있는 지금, 오늘 신문엔 새로운 경합지역이 생겼다길래 알간지마다 작은 지역구도 현대, 후보자들은 물론, 몸구 학생들이라던데... 이를 본 크로나를 한바다 "절대에게 환심을 사는 일은 이제 한동안 일임을 왜 모르겠는가? 다른 후보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걸 왜 모릅니까?"

(홍)

O... '보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손가락이 잘리고 눈이 멀어도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병원도 가지 못하고 그 동안 일했던 임금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려하드는데... 이해 우리의 크로나를 한바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당해한 했던 아주노동자들의 아픔을 벌써 잊었나보다?"

(정)

코리안 드림의 허상

악을 단선

민족화해아카데미 9기 수강생모집

민족화해아카데미에서 9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론화하여 시민들에게 통일이 앞서 민족화해를 논의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강좌는 △민족의 역사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하여 등 크게 세부목차로 백령도 기행과 북한문화관광도 포함하고 있다.

리영희 한대명 명예교수와 한대명 통일의 정치경제학을 시작으로 총 14건의 강의로 진행되며 특히, 우리하고 이종교수(법학)가 '남강주조제에 대한 법률적 접근'을 주제로 강연하기도 한다. 기간은 3월 30일(목)부터 6월 7일(수)까지이며 19:00부터 21:00까지 진행된다. 강의장소는 경실련 강당이며, 대상은 통일에 관심 있는 시민과 학생이 제한된 것은 80명이다. 문의는 02) 757-7366



전면적 직선제 정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집행위원장 강현구를 만나

공투본의 건설배경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철도노동조합은 53년간 대의원이 대의원을 선출하는 3층간선제로 노동조합정부를 선출했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민

"직선제 정취를 민영화 저지로 이어갈 터"

주파를 위해서 간선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결정을 하게되었다. 결선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지난 1월 14일 대법원에서 대의원이 대의원을 선출하는 간선제는 무효라는 판결이다.

3중 간선제가 무엇인가

지금 노동조합에는 지부와 지방본부, 본조합이 있다. 3중 간선제는 조합원이 지부대의원을 선출하며 지부대의원이 지부장과 지방본부 대의원을 선출한다. 그리고 지방본부 대의원이 지방본부위원장과 조합대의원을 선출하고 조합대의원은 조합위원장과 노동조합총동맹 대의원을 선출한다. 대의원이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조합원이 직접적으로 조합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기에 조합위원장은 얼마든지 연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

처음에는 조합원 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가장 큰 의결기구인 총회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노조측에서는 총회라는 것이 규약에 없으며 우리의 요구를 무시했다. 이에 우리는 2월 17일부터 본조합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직선제 정취를 위해 오로로(28일) 41일째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현청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현재 노동조합측에서 철도청과 연계해 공투본 조합원에 대한 파견과 강제조치를 내리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반영하듯 농성장에 2월 22일과 3월 20일 2번의 침탈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팔목과 발목의 골절, 두부파열, 타박상 등 조합원 수 십명이 부상을 입었다.

최호성 기자

비둘기협판

왕 산 골

● 자주무엇하고 주욱!!
우리 연합모교지 갑니다. 4월 1일에서 2일이구요. 충주호 리조트로 가거든요. 서바이벌 게임도 하고 무한회사의 단 결된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구요. 무한회와 파이팅!!
(무한회와 파이팅)

● 주욱~ 4월 1일 우리들 우리공원을 인도어와 연합모 교지 갑니다.
모포록 모두 참여하시고 아직 못한 과제를 부러워 하지마요.
(인도어와 학생회)

● 철학과 여러분! 연합모교지 가서 한바탕 신나게 놀다오세 요. 과사람들과 만나니 친해지구요. 술은 적당히 마시세 요.

요. 철학과 파이팅!!
(철학과 왕파)

● 공대학생회에서 수습간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대 102 호(구내전화-43980)로 오시면 배움터에서의 또 다른 세계 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밤 공대여도. 술 공대여도... 정말 땀까지 않습니다?
(공대학생회)

● We are the 함둥이사랑화.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과 함 께 하는 저의 함둥이사랑화에서 2000년도 새세기를 모집하 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교로 새세기들은 학생회관 217호로 오세요.
(함둥이사랑화)

이 문 별

● 힘내세요
● 소은! 힘내. 언젠가 너의 곁에 우리가 있다는 거 있지.
(영양교육과 99학년 일동)

미알립니다

● 비몽, 실청 받습니다. 청소년구(및자부, 쓰레발이, 대접제, 쓰레기들 등) 타이틀, 외자, 개비네 등 물품신청을 받습니 다. 28일(화)까지 받는다의 거 잊지마세요.
(제 17대 동아리 연합회)

● AIESEC(아이섹이라 읽음) 종교동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Oh! No~ 세계 85개국을 앞뚫 산아 뛰어나니는 좋은 동아 리이죠. 더 자세히 알고 싶으세요? 그럼 학생회관 4층 파 단대문을 찾아주세요. 연락처는 961-4500입니다.
(아이섹)

● 컴퓨트에서 맞고 이쁜 새세기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컴맹도 환영합니다. 학생회관 4층으로 발머오오 오세요.
(컴퓨터)

● 국악동아리 연소리
다소. 피리, 대금, 가야금, 거문고, 기호부터 신의 경지까지

책 읽지도

● 당신이 대학 와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결정적 설대. 연·고대. 설·인천고대. 설대. 한양대. 이대. 주체에 대등을 축복은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알소리)

●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실천사랑' 여러분을 기다렸습니다. 학생회관 4층으로 오세요. 구내 전화는 4569입니다.
(실천사랑)

● 2000년도 새세기 출발~ 학생생활 상담연구소로 오세요. 개인상담, 집단상담, 유학 및 자료이용, 심리검사(각종검사) 등을 하고 있으며, 여러 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어 드립니다. 학생회관 2층으로 오 시면 됩니다. (961-4164)
(학생생활상담연구소)

비둘기협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52, 4466 팩스 : 961-4183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30-4112, 4580

“죽지못해 살고있지”

보통정도가 남은 413 총선. 총선시민연대를 비롯 여기저기서 이번에는 한번 바퀴보자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런 활동들에 별 기대를 얹는 눈치다. 그들이 그늘이고 항상 대선당해 왔다 는 것. 김대중 정권에서 IMF는 과연 정리됐는지. 총선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경제를 직접보는 시 장에서 시민들은 만나 얘기를 들어 보았다. 편집자

청라리 경동시장에는 김대중 정부에 대한 불 만이 높다. 경동시장 한 곳에서 10여 년을 팔아 이 잘 팔리라는 질문에 대뜸 화를 낸다. IMF 이후로 매상이 반 이상 줄었다. 장바구니 나오는 사람들이 매장을 10개 걸어도 겨우 한 개만 산다니까. 경제가 회복됐는데도 그저 다 죽소 라니, 시장에 한번만 다녀와 보라 그래. 어디 그 말이 맞는가? 그저 바라는 건 장사가 잘되는 거라면 전제는 등록금 얘기가 나오자 깊은 한숨을 낸다.

“자식들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대요. 장사는 안되고 나가는 돈은 많고... 하루 벌이 막기도 힘든데 장책이 하나도 안 팔 수가 있네.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잘라서 취하는거 아니냐. 국회의원들이 자기 잘라서 잘 안 팔고 멋대로요” 정씨는 이번 총선에서도 찍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18년 동안 생장을 팔아온 이종순씨(여·47)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산가는 하는데 누구를 팔리지 그 누구도 놓이니까, 요즘엔 총선 시민연대까지 팔지 않아요. 그나마 해봤자 별 소용 없을 것 같아. 우리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쉽게 못 변하지” 이런 하러를 진통제로 견디는 이씨는 이때부터 더 걱정이다. 곧 큰아들이 결혼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나아졌다고 하

는데 어쩔 더 살기 힘들어진 것 같아” 어렵기는 장사하는 사람뿐이 아니다. 시장에 장보러 나온 사람들은 “경제회복”이란 말에 는 모두 고개를 내젓는다. 67세의 한 할머니는 작은 과 한단 사는데도 여러 가게를 둘러본 후 어야 산다고 한다. 경제회복으로 고통받음을 강조했던 김대중 정부는 지금 시장에서조차 외면받고 있다.

화창한 토요일 오후, 왕십리 변화가는 별처부터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시장 입구에는 옷가게의 박희자(가명 58·여 서울시 행당동)씨 가 밖에 걸어놓은 옷의 반지를 털어내고 있다. “없는 사람들은 끼네가라고요. 저지, 뭐. 먹고사는 건 고사하고 끼네가 세를 2년이야 밀려서 보충금도 다 날라갔어” 먼지를 털어낸 자리에 깊은 한숨이 대한다. “여기 형편이 다 마찬가지지. 자기 이불집은 한창 혼수상태에도 손바 하나 없어.”

“박 씨의 말을 듣고 이를 가게에 들어갔다. 주인 김장철(71년 60·남 경기도 안양시)씨가 신문을 뒤적거리고 있다.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자리가 차고 있는거야.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경제 이후 빈부격차가 커야하더라? 우리 같은 서민들은 죽지 못해 사는거야” 김씨는 또다시 신문을 뒤적거리고 있다. “요즘 학생들은 왜 대모를 안하는지 몰라. 물론 대모하면 우리같은 장사꾼들이고 그 날 잠시 흥치는 거지만 그러고도 해서 바뀌어야.”

어느 집을 지나 “죽지 못해 산다”는 소리는 들리거나, 시장은 화창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쓸쓸해나오며 기운이 떨어졌다. 전라기만 해도 터져나오는 조롱한 아우성을 뒤로 하고 시장을 나섰다. 정씨는 이번 아우성이 있다는 걸 알고나 있는지.

전대기권 동부시장 공동기자단

한총련, 낙선대상자 발표할 터

지난 21일(월) 한양대학교에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16대 총선과 한총련의 국회의원 낙선운동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지고 16대 총선에서의 한총련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한총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돌입하고 있다. 또한 부패하고 썩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의지가 날이 갈수록 위용을 더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지역감정과 색깔론으로 국민들의 감정을 들쭉시키고 있고 ‘20여 년 3선 4선’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금품·향음 재물은 온 도시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이번 총선을 ‘척박한’ 금권 선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금품책이 달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욕심에 노이 정치의 외피를 둘러싸는 것도 아니다. 정치권은 이 나라의 장래와 앞날을 보아야 한다. 환심을 사지하고 진정으로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며 현 정치권에 대해 비판했다.

이번 총선에서의 활동에 대해 “총선시민연대가 발이고 있는 부정부패, 빈곤과 전락, 선거비 부패와 등에 대한 낙선운동과 더불어 한총련이 모든 힘을 기울여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진정으로 국민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비교적 양심적인 정당규명을 위한 전민족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최근 주한미군에 발생한 침상체제 살해 사건을 조사하라, 살자자 매카시를 처벌하라”, “반미주,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국가는 교육자격을 해를 확보하라”라는 4가지의 공개 질의서를 각 지구 공천자들에게 제출하고 진정으로 동의하는 마음을 가진 국회의원



부패한 정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미로 분장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출마자를 선별하고 합의하는 사람에게는 당선 운동을, 합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을 전국 178개 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지난 12일(월) 전국대학교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가지고 낙선운동 지지와 총선 개입을 밝혔다.

운동본부의 ‘반드시 투표하기’, ‘정치개혁을 위해 나로부터 실천’ 등의 내용으로 ‘유권자 행동선언’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 측은 “지역주의 선동정치를 추방, 대학총학생의 부패자 투표를 위한 내내 부패자 투표소 선동 등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고려대학교 등 55개 대학에서 ‘대학생 유권자 운동본부(운동본부)’는 정치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2일(월) 전국대학교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가지고 낙선운동 지지와 총선 개입을 밝혔다.

운동본부의 ‘반드시 투표하기’, ‘정치개혁을 위해 나로부터 실천’ 등의 내용으로 ‘유권자 행동선언’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 측은 “지역주의 선동정치 추방, 대학총학생의 부패자 투표를 위한 내내 부패자 투표소 선동 등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호성 기자 hobbang1083@hanmail.net

기자의 눈 껌질뿐인 ‘베를린 선언’

‘남·북간의 대화 촉구’,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에 북의 적극적인 호응’, ‘이산가족 문제 해결’, ‘특사교환 재의 수락’

지난 10일 독일을 방문중인 김대중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이라는 대북 제의를 발표했다. 그러나 ‘베를린 선언’은 2년 전 김대중정부의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다만 다르다면 국내와 해외의 차이일 뿐이다.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입장에 대해 북한은 영연 2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외세의 공조로 북을 압박하지 말고 민간단체와 통일운동은 자유화하라”는 제의를 했었다. 그러나 김대중이 지난 지금 북의 제의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알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과 ‘베를린 선언’이라는 것이 등장했다는 것은 흥분을 겨냥한 하나의 발명이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다. 또한 이것은 햇볕정책과 함께 김대중 정부는 대북 정책을 잘하고 있다 는 식으로 진정으로 통일을 바라는 민중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발명일 뿐이다.

남·북의 통일이 단지 교류와 협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가? 일년 내내 남·북 합동 군사 훈련으로 북을 강경시키고 있고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으로 한때 수 백명의 발명자를 만들어 내면서 교류와 협력으로 통일이 이루어질지 바 바라다는 말인가?

제외라는 것은 양측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만약 이번 베를린 선언에 북의 호응이 없다면 또 다시 북이 통일을 거부하고 비판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통일을 염원하는 민중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일이다.

최호성 기자

건국대 학생처, 학생감시 기관으로 둔갑

학생들의 행사행위를 담당하는 학생처가 학생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는 지난 17일(금) 건국대 학생처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입수해 건국대학교 학생처 직원과 함께 확인했다고 밝혔다.

99년 총학생회장 선거 및 향후 통행이라는 이름으로 작성된 이 자료는 99년 11월 건국대 총학생회장 선거가 출마했던 모든 후보를 및 중앙 선거운동위원회의 출석자, 운동장점, 공약사항 뿐 아니라 과거행적, 성적, 친분관계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A형지 5대 분량으로 작성된 이 자료는 99년 총학생회장 선거시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는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의 성향을 ‘정통론’, ‘좌파 PD계’, ‘비운동권’, ‘우익 기독교연맹’으로 분류하고 그들의

성향을 마치 연에서 주인공의 성격을 묘사하듯 자세히 서술한다.

“다른 학생들과의 차이로 주목점을 할 정도로 성격이 급한 면도 있지만”, “운동권 학생들과 성격차이가 인정하는 것을 피한다”는 등 학생의 상황에 따른 정보만을 두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수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이 자료에는 한영 한영에 대해 ‘정의감’이 있어 학교교육과 정치적인 타락과 협상감이 있어 내기는 부족하다”, “학교의 정책과 생각차이가 인정하는 것을 피한다”는 등 학생의 상황에 따른 정보만을 두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수준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자료에 의하면 한영 한영에 대해 ‘정의감’이 있어 학교교육과 정치적인 타락과 협상감이 있어 내기는 부족하다”, “학교의 정책과 생각차이가 인정하는 것을 피한다”는 등 학생의 상황에 따른 정보만을 두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수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때문에 향후 총학생회의 운동방향에 대해 내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며 “결국 상부 보고용이 아니었으며 다른 대학 학생지도 일장적으로 하고 있는 일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분명 캠퍼스 파일을 지었는데 누군가 정보를 도용한 것 같다. 밝혀진 문서는 지워진 파일의 비이펙트(backup)파일을 살펴서 출력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국대 측은 “학생들의 선거공약 등 요구사항을 미리 파악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작성한 결과 인다”며 “사실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되며 잘못된 일이 없기 때문에 관련 직원을 징계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자료에 언급된 한 학생은 “학생처에서 작성한 자료에 내 이름이 있다는 보도를 보고 당황스러웠다. 요즘도 학생처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호성 기자 hobbang1083@hanmail.net

선거법 위반혐의 피의자 ‘알몸수색’ 물의

경찰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체포한 여학생을 자해도구를 찾는다라는 이유로 ‘알몸 수색’을 해 비난을 사고 있다.

성남 남부경찰서는 지난 19일(일)과 22일(수) 이틀에 걸쳐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와 학생 등 9명을 민주노총 대외연대회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 는 대우를 실린 민주노총 후보를 물리려한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한행방으로 체포해 7시간 동안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유치장에 가두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은 여성 노동자 2명과 학생 1명에게 “자해할 용의가 높아 몸수색이 필요하다”며 여학생을 시켜 옷을 모두 벗긴 뒤 ‘알몸 수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성남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유치장에서 자해를 한 경우는 많이 유치규칙에 따라 몸수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시 피해를 입은 한 여성은 자살서를 통해 “자기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남자 직원을 대동시키겠다고 위협했다”며 “누가 질자고도 관용이었다고 하더라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시되는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 경기도 부지구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해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와 절차와 관행을 이유로 행해지는 것을 적극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내 ‘반미’ 집회 연이어

지난 25일(토) 용산 전쟁기념관 앞과 명동성당에서 ‘반미학살’ 집회, 주한미군 철수 결의대회와 ‘일반민족 살인행위’ 주한미군 철수, 사대매국 김대중 정권 실권을 위한 서울시내 결의대회 가 100여명과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각각 진행되었다.

용산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강규철 조국통일본부장(일반민족) 남북본부 부의장은 “한국전쟁 전후로 자행된 주한미군에 의한 일반민족에 대한 규탄과 미국정부의 사죄, 배상을 요구하고 최근 이북에서 재연된 ‘미군 일반민족 살인범죄특별조사위원회(전 민족위)의 실무협상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고 “본단의 근원인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한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명동성당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박선(서울지부) 한국민족통일본부 지부대변, 미민족 남북본부 서울사무장 부의장은 대 회사를 통해 “우리민족은 남북교류정상화와 의식을 가진 민족이다. 지난 55년간 미군의 범죄는 도처에서 있어왔다. 7천만 민족은 모든 살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한다. 반미 투쟁은 누구 하나의 것이 아닌 7천만 민족의 것이기에 우리는 단합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서울동부지구학생총학생회(동총련) 임시집회 박기태(세종대 총학생회장)간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서울캠퍼스 예비군 대원 신청 안내 2000학년도 1학기 대학직장 예비군 편성 대상자는 등록금 납입후(복합자) 다음과 같이 예비군 대원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입신고 가. 대상 : 복학, 입학, 편입학, 재입학, 복수전공, 학부에서 대학원 진학자 나. 구비서류 : 예비군 병검보유원서(비상계획관실 비치) 학력변동 신고서(교무처 학과 및 각 대학원 교과과 발행), 등록금 납입 영수증(신입생 및 원적 복학자는 제외) 2. 전출신고 가. 대상 : 휴학, 자퇴, 제적, 졸업자 (일반 직장에 편성 대상자) 나. 구비서류 : 학력변동 신고서 (교무처 학과 및 각 대학원 교과과 발행) * 기타 문의사항 학생처 1층 학생처 및 비상계획관실로 문의 전화번호: 961-4145-6 FAX: 963-7334 2000. 3. 서울 캠퍼스 직장예비군연대장	용인캠퍼스 예비군 대원 신청 2000학년도 1학기 예비군 대원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되는 학생은 등록 후 14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입신고 가. 대상 : 복학, 편입, 복수전공자 및 (재입)학생 나. 지점별 : 등록금 납입영수증, 학력변동 신고서 (교무과 발급) 2. 전출신고 가. 대상 : 졸업 및 휴학자, 취업 및 대학원 진학자 나. 지점별 휴학 : 학력변동 신고서 (교무과 발급) 졸업 : 주민등록 주소 변경지 (비상계획관실로 신고할 것) 3. 신고장소 · 위치 : 비상계획관실 (승차정 및 정보산업관 510호) · 대원신고서 접수는 추가등록 미지급 이후 14일까지만 받음 · 연락처 : 0335-330-4111, 4119 2000. 3. 용인 캠퍼스 직장예비군연대장	Internet WEB을 통한 해외학술정보 및 CD-Rom Title 소개와 이용안내 도서관에서는 전자도서관 구축의 일환으로 WEB을 통한 상용 On-line DB 및 전자지식의 구입과 CD-Rom의 확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오는 3월부터는 이들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이용자들께서는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이용방법은 교내 LAN에 연결된 PC에서 도서관 홈페이지(http://webdb.hufs.ac.kr)에 링크되어 있는 각 서비스에 접속하므로 별도의 절차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속되어진 DB를 통해 원하는 Title이나 Article의 전문 혹은 색인 등을 검색, 인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가능한 DB와 CD-Rom title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BSCOhost 2개의 DB가 있습니다. (1) Academic Search Elite 전 학술지에 걸쳐 1,000여종의 대한 학회의 최근 12호까지의 전문(全文)과 3,000여종의 색인 및 초록, 7000종의 PDF 형식이 제공됩니다. (2) Business Source Plus 경제, 경영, 인사, 무역관련 해외학술지에 대한 서비스 제공 2. PQQD (ProQuest Digital Dissertation) 최근 4년간 해외 1,000여개 교육기관에서 수여된 논문의 원문 및 초록 제공 3. Emerald 전자지식 MCI University Press에서 제공하는 사회과학 및 공학관련 분야의 전자지식 제공 4. EBSCO Online 본 도서관 구축장비에 대한 Online 서비스 제공 5. Sweetsite 14,000여종의 자료에 대한 최신정보 및 본 도서관 구축장비에 대한 원문 제공 6. 신규 구입 CD-Rom Title 목록 대한민국헌법정보, 판례집, 고시, 문헌정보, 법제사, 역사와 현재, 삼국사기·삼국유사, 동국이상경전, 왕가비 비(왕조)~1000), 조선왕조실록, 한국사명도감, 고전소설목록, Encyclopaedia Britannica 등 13종 2000. 3. 도 서 관 장	사범대학 교양특강 안내 2000학년도 교양수업 및 교양임용시험과 관련된 특강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일시 2000년 3월 31일(금), 11:00 2. 장소 시청각관 210호 3. 연사 이성진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국장) 4. 연제 1. 현직이 바라보는 교사상 2. 교육실습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려면 3. 교원임용시험 출제 경향 2000. 3. 23 사범대학장
---	---	---	---

시평·오규원 시집 (가room은 주목받는 생이고 싶다)중에서

타인을 통해 보는 자신

거울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인 만큼 자주 사 용하는 물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이 현대인들의 일상 을 볼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 작가는 이것을 통해 현대 사회의 병든 현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작가는 거울을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울을 통 해 작가를 보고 있다. 여기서 거울은 그 거울을 통해 작 가를 보고 있다. 여기서 거울은 남들이 보는 다시 말해 현대 사회가 보는 '나'이다. 거울은 한정한 사실만을 말 하고 거울 속에서의 자신은 결코 숨일 뿐이다. 거울은 그 내부로 비추지는 못한다. 가짜일 수도 있는 인간의 모습 을 담는 거울은 분장을 한 외모만큼이나 비추 수 있는 것 이다. 한정한 표면에서의 사실은 지극히 '나'를 알기에 미흡하며, 거울에 비춰지지 않는 진실이 외면되는 것이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 작가는 실 망한다. 80년 후반에 쓰여진 이 글은 경직된 산업 사회의 문제점이 부각되는 시기에 작가는 점점 무심해져 가는 사회에서 결코 숨일만으로 인간관계 맺으며 서로를 판단 하는 현대인을 나무라고 있는 것이다. 그 것은 거울만큼 쳐다보고 현실을 직시하는 풍조를 비난하는 것이다. 거 을 앞에서의 부재, 그 것이 작가 자신에게는 진정한 나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거울은 거울 앞을 떠난 자를 결코 용서하는 법이 없다. 거울 앞을 떠난 거울은 그 순간 떠난 자를 그대로 사 재한다. 거울을 보려면 우리 불려도 없이 생겨도 거울 앞을 떠 나서는 정말 안된다. · 사실이 진실에게

부재에서는 작가가 보고 있는 거울을 말하려 한다. 그 가 보는 거울은 자신의 앞에 존재하는 형상만을 말하며 그 앞에서의 부재는 비추지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그 사 실을 전인화해 사재하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거울 앞 을 절대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의 폭력으로 우리도 모르게 사회에 구속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 불려 도 없이 생겨도' 이것은 작가가 자신을 찾고 싶을 때 자 기 마음대로 사회를 보고 싶을 때가 있어도 그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굴레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 진실에게' 이 말은 커다란 의미를 두고 있다. 사실이 진실에게 거울의 잔인함을 충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은 이미 거울을 통해 보여진 나이며 진실은 보이지 않는 나이다. 그렇기에 사실은 그 사실을 진실에게 말함으로써 이 작가가 의도 하는 시의 주제가 부재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나는 지금 거울 앞에 있다 거울의
입구는 거울만큼의 크기로 넓고 단정하고

거울의 안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게
나의 크기만큼 차 있고 나머지는 비어 있다.

나를 인식할 수 있는 만큼의 크기로 되어 있는 거울은 넓고 단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가 '단정하고' 하며 종결형으로 끝을 내지 않은 것은 넓고 단정하다는 것을 반어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려고 할 수 있다. 나의 크 기만큼 거울 속에 차 있다는 것은 나를 인식하는 부분이 다. 나머지 부분은 비어있다는 것은 나를 인식하지 못하 는 부분이다. 비어 있는 부분이 진실이기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거울 안에있는 나는 완벽해질 뿐이다.

거울이 아니고 인간인 나는 늘 큰 키 덕분에 내 머리
가 모가지는
거울밖에 있고 실점만들 때까지는 거울 속에 있거나

혹은 내 이빨때리는 거울밖에 있고
머리와 심장은 거울 속에 있다.

나는 지금 거울 앞에서 걸고 있지만 거울 속의 나는
이빨때리거나 이빨때리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이빨때리거나 이빨때리거나 그 중 하나가
거울 밖으로 나오면 나는 하나가 된다.

작가는 그가 경험한 거울의 한계점을 말하려 한다. 인 간인 나는 거울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이 맞 춰 준 부분에서만 나에 대한 사실과 진실을 보여 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부분의 진실을 말하려다 보면 또 다른 부분의 진실은 버려지고 마는 것이다. 여기서 작가는 어 느 한 부분의 진실을 말하기 위해 다른 부분이 왜곡된다 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울 밖으로 나오려 한다. 그렇 게 해서 사실과 진실을 하나가 되게 한다. 이것은 사회의 부당함에서 빠져 나오려는 것이다.

나는 거울을 보지 않는다 면도 할 때도 한 손으로 면 도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 수염을 더듬는다 그때도 수염은 잘 깎인 다.

우리집 발톱은 자기 아버지 가 잘생기지는 못했지만 몇
있다고 믿고 있다.

발톱의 착각이 재미있으므로 나는 거울을 보지 않는다.

작가는 이제 거울을 보지 않는다. 거울을 보지 않고도 다른 한 손으로 더듬으며 수염을 깎는 것에서 그의 생활에서 왜곡된 사회의 부재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결 론이 나온다.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자 여기서는 가족으로 말하 고 있으며 그들은 사회 속의 나는 바라보지 않는다. 결코 숨이 아닌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 작가는 그것이 착 각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작가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진 실을 편으로부터 볼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작가는 타인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거쳐 자신을 바라본다면 타인에게 알아지지 않는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작가가 우리에게 자신이 바라보는 나도 중요하지만,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 을 부각시키려 한다.

함미선
(문학·아리랑 2)

혼자보기 이따다

혼자만 감상하기 가까운
외대인의 작품을 찾습니다.
문학작품, 시, 미술, 광고 등
모든 종류의 작품을
학보에 실어보십시오.

미감은 금요일 오후까지요, 학생회장 2층 학생기자실로
가져오거나 컴퓨터 통신(나우누리, 하이텔: oedae)으로
도 원고를 발송합니다.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등록금은 턱없이 비싼데 스콜버스 없나?” “식당 밥 값 내려라!” “식당차를 바게트 빵으로 바꿔주세 요 ... 학교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적어달라는 요청에 신나게 적어내는 후배·동기·선배님 들. 그들의 불만사항이 적힌 편을 하나하나 이모의 다시 한번 구체적 계획이 98%나 올린 등록금 인 상의 부담감을 느낀다.

사건부 hyodeng@hanmail.net

국토순례기 수필·자전거로 국토 한바퀴

자전거와의 약속, “완주할게요”

내가 처음 국토순례와 인연을 맺은 것은 작년 이맘때 쯤이다. 많은 사람을 알게 되었고, 내 20대의 회고라 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해준 국토순례였다. 그리고 나에게 어 떤 단체의 책임자라는 소임을 알려주었던 내 대학생활 의 중요 요소였다.

우리 동아리의 주요 활동은 바로 자전거로 하는 순례 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활동, 20km 이상의 하계도로 순례 이다. 처음 동아리를 들었을 때는 하계도로 할 생각을 할 리 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전해준 동아리에 익 숙해지면서 20km 이상의 하계도로를 너무 하고 싶었다. 안 된다 부모님께, “이제 아니래 못해요” 라고 조르도 또 졸랐다. 자전거를 잘 못타고 답방거리는 내가 못타면 우신 부모님은 안 된다 말하시다가, 애교(?)와 집안 일을 돕는 노력이 가장했던지 허락을 하셔서 나의 순례행이 결정되었다.

순례하기 전 3월 4일로 합숙을 하는데 이젠 부가 나 에게 너무 힘들었다. 모험까지 하루에 50만 정도는 왕복하 는데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육체적 고생이었다. 그리고 합숙기간 중에 모험을 내려가다 넘어져서 턱에 상처가 생기는 등, 기가 잡부터 너무 힘들었다.

하루에 70~80km를 달리는 데,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내리오는 햇빛 때문에 많이 비오듯 졸아졌다. 두 번째 날의 오봉산에서는 너무 힘들어, 부모님을 처리리 하락을 맡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경주-부산을 갈 때 예는 매 시간 때문에 120km를 달렸는데, 이때는 너무 힘 들어서 애들 앞에서 목 놓아 울기까지 했다. 정말 이럴 때만 들어가고 싶었다. 거기다 나는 답방거리는 성격으 로 하루에 한바퀴는 넘어졌고 매일 다치고 다치며 또 다 치고, 정말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나만 힘든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힘든 데 그럴 수 없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완주하겠다는 약속을 잘 수 있었다. 그래서 친구들, 선배님들에게 보내 는 편에서 “완주할 게요!”라는 말을 일부러라도 썼다.

하루의 시작을 처음엔 ‘이제 3월이구나, 잘 가자’ 이런 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3월 31일이 가 되는날 까지, 그리고 마지막 21일 쯤엔 ‘어서오십시오. 경기도입 나다’ 의 꽃밭 앞에서 우리는 환호했고 처음으로 모험이 보이는 표지판 앞에서는 모두 아무런 걱정 없이 웃을 수 있었다.

그리고 용인 외대에는 표지를 보고 난 눈물이 나왔다. 광 도는 눈물. 난 약속을 지킨 것이다. 20km 21일 동안 내 자전거와 같이 해왔다는 약속과 완주하겠다는 나 자신과 의 약속을 말이다.

순례는 우리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었다. 어 디까지 가겠다고 계획을 그리다 그 곳까지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오르막이 급하면 내리막도 급하다는 것. 그런 걸 내 발로 깨달을 뻔으려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사는 것도 그런 것이었지. 어떤 목 적의 있을 때 노력하면 이를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쉬운 일을 있을 것을 깨닫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라고 함께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난 순례를 갔다 와서 다리로 두꺼워지고, 무릎에 상처 가 아주 크게 나서 복통해졌다. 부모님은 기침에 다리 에 상처 났다고 순례 권하 보냈다고 하지만, 내가 얻은 이런 마음가짐을 생각하면 그리 속상하지 만은 않다. 그 래서 순례 후 병원에 다녔을 때 의사가 놀라면서 “왜 래요?”라고 물었을 때 난 자랑스럽게(?) “여름 때 자전거 로 순례 했다가 다쳤어요!”라고 말할 수 있었다.

다리의 흉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알아지겠지만, 순례를 통해 얻은 것은 평생 안 잊어 질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 리고 나에게 이런 좋은 재산을 알게 해준 20km 21일을 잊 지 못할 것 같다. 또 나에게 붙여진 “순례자”라는 칭호 (?) 혹은 훈장을 난 영원히 잊지 못할 듯 하다.

김영선

(국토순례 제 15기, 화학과 98)

민족자주권론
외대학보

외대학보에서 2차 수습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모집대상 : 열정있는 00학년 새내기
- 모집시험 : 4월 3일(월) 자기소개서 및 간단한 논술, 면접
- 모집부분 : 대학부·사회부·문화부
사건부·학술부·광고부·민화부
- 문 의 : 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사 기지실
서울) 961-4152, 4466
홍인) 330-4112